

# 광산구, 위원회 회의 실시간 공개...행정 투명성 높인다

### 전국 지자체 최초 위원·회의록 공개 시민 알권리 충족, 신뢰도 향상 구청장 "시민 체감 혁신 구현 첫걸음"

광주 광산구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개하기로 행정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의 이 같은 결정은 각종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6일 광산구에 따르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행정 행위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118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 일부 위원회와 안전 특수성상 재적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비공개 결정이 난 안전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이번 달부터 전면 공개한다. 위원회 회의 개최 전 안전별 검토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회의는 당일 광산구 누리집 '광산LIVE(라이브)'를 통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논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회의록도 회의 개최 후 한 달 이내에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광산구는 특히 비공개 대상이라도 다수 주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원회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제공동의서를 받고, 이름과 직책, 임기, 직업(전문 분야) 등 명단을 함께 공개한다. 광산구의 이번 결정으로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을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좋은 공동체, 지속가능한 광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선도하는 한편 시민의 두터운 신뢰를 쌓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와 진흥중학교 학생들이 최근 구의회 회의실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산구 일상 공유'

### 정책 영상 공모전...10월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는 "시민이 일상에서 누리고,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알리기 위해 '광산구 일상을 공유하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실제 생활하며 누릴 수 있는 광산구의 정책, 혜택 등을 주제로, 일상을 담은 영상을 모집한다. 형식은 순수하게 창작한 광고,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영상일기(V-LOG, 브이로그), 뮤직비디오 등 무엇이든 가능하다. 단 5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광산구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지역·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10월31일까지 온라인 폼형식의 신청서를 작성, 전자우편(0605kang@korea.kr)으로 창작한 영상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온라인 주소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누리집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작품 접수 후 독창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개관

### 초3~고3 대상 지역 예술영재 조기발굴·육성 맞춤형 교육

광주시는 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기관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개관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옛 광주여자고등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를 조성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는 연면적 361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음악19실, 전통13실, 무용2실, 융합3실, 사무12실 등 총 49실로 구성됐다. 1층은 소공연장과 교습실, 2층은 전통예술실과 융합세미나실, 3층은 무용연희실, 융합실, 4층은 150석 공연관람이 가능한 무용실이 설치돼 있다. 교육과정은 음악(기악·성악·작곡), 무용(발

레), 전통예술(기악·성악·무용·연희), 융합(영상·멀티미디어) 등 4개며,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올해는 61명의 교육생이 1년간 무료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부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원하고, 한예중은 2022년 하반기 사립교육부터 강사진을 파견해 지역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은 광주 외에도 세종시, 경남 통영시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광주캠퍼스에서 예술 영재들이 한 사람의 예술인으로 오롯이 성장하는 배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예술 영재들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감동하게 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환경 만들자"

### 광산구의회·진흥중학생 참여 간담회...전동킥보드 등 안전 대책 시급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운영일)는 "지난 1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시속 25km 및 중량 30kg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면서 각종 교통사고와 무단 방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운영일 위원장과 진흥중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광산구의회,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해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실태와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1년 5월 제정된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교통시

설과 주차 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선 현행 조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편의성이 높아 이용이 늘고 있지만 전용 주차 시설이 미비하고 불법 주정차 등을 다루는 법령이 부족해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역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관한 운영일 위원장은 "안전한 교통문화는 시민의 의식 확장에 중요하지만 그에 필요한 제도와 환경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동킥보드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한 미래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건강한 생활 실천 '광산시민 건강강좌'

### 광산구보건소, 15일~11월16일 운영...평생학습포털서 신청

광산구보건소는 이달부터 '광산시민 건강강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건강강좌는 인터넷(유튜브 등)에 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건강정보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사업이다. 강좌는 15일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매월 1회 오후 2시 광산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첫 번째 강좌는 척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주제로 이종철 동신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교수가 강의한다. 강의 후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 실습도 진행한다. 10월에는 한의약으로 보는 냉면기 여성건강,

11월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2부 행사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방꽃차 만들기, 심폐소생술 실습도 마련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 (<https://edu.gwangs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과(062-960-3655)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강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얻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 시민주도학습 '서로배움터' 참여하세요

### 분야별 5개소 선착순 모집

광주 광산구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서로배움터'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서로배움터'는 교수자, 학습자의 경계를 허물고 광산구민 누구나 4인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 교육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모집 분야는 인문교양, 건강, 스포츠, 문화예술(취미, 여가 포함), 악기, 노래 등 취미생활에서부

터 실생활 관련 교육까지 다양하며, 장소도 카페, 공공시설, 사무실 등 교육 내용과 편의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하반기 '서로배움터'는 11월까지 운영하며, 분야별 5개소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학습모임에 대해서는 강좌당 최대 10회까지 회당 3만 원(40분 이상)의 강사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팀(062-960-8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 상반기에는 23개 서로배움터에서 144명이 참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